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2. 29. ~ 03. 06.

전남농업정보 74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3월 한우·돼지·계란 가격 동향 및 전망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홍차 수출을 위해 생산농가가 직접 앞장서다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고품질 벼, 안백·만백

· 단감 유기재배 매뉴얼 책자발간 보급

정책동향

·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15만 7천톤, 3월 중 매입 추진

해외 농업정보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 5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 전반에는 조금 높고, 후반에는 비슷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많겠음

❀ 축산물 동향(관측정보) ····· 8

▸ 3월 한우·돼지·계란 가격 동향 및 전망

❀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 9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1

▸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나주시, '토양검정'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광양시, 벼농사 제초효과 탁월한 새끼우렁이 공급

▸ 고흥군, 억대부농 534농가 "전남 최다"

▸ 강진군, 친환경농업 이제는 돈 안들이고 실천

▸ 해남군, 2016 농촌지도사업 62개 시범사업 선정

▸ 완도군, 해풍의 농업적 이용가치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9

▸ 국산 홍차 수출을 위해 생산농가가 직접 앞장서다

▸ 청주 '청원생명쌀' 80톤 중국 수출 길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1

▸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고품질 벼, 안백·만백 품종

▸ 단감 유기재배 매뉴얼 책자발간 보급

▸ 과수원 개원 시 나무는 남북 방향으로 심으세요

▸ 얼었던 땅 녹으면 풋거름 작물 습해 주의하세요!

▸ 겨울 사료작물 파종 부진, 봄 파종으로 해결하세요

▸ 작물의 안정적 생육, 비료 사용에 달렸다

❀ 정책 동향 31

▸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15만 7천톤, 3월 중 매입 추진

▸ 전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에 1조 5천억 지원

▸ 농관원, GAP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 해외 농업정보 ····· 35

▸ 캐나다, 인삼 수입규제 완화로 수입시장 성장세

▸ 프랑스, 곤충으로 고단백질 생산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2.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낮은 파종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단수 조건으로 인해 재고량이 증가 할 것이란 전망에 하락함.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수요를 앞지를 만큼의 상당한 파종면적에 16/17년 옥수수 공급량이 근 12년래 최대일 것이란 USDA의 전망에 하락함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재고량이 crush량과 수출 수요로 인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반등이 기대되었으나,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대두 생산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에 10주래 최저가격을 기록하며 하락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0

▸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 하세요!

▸ 과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태풍, 동상해 대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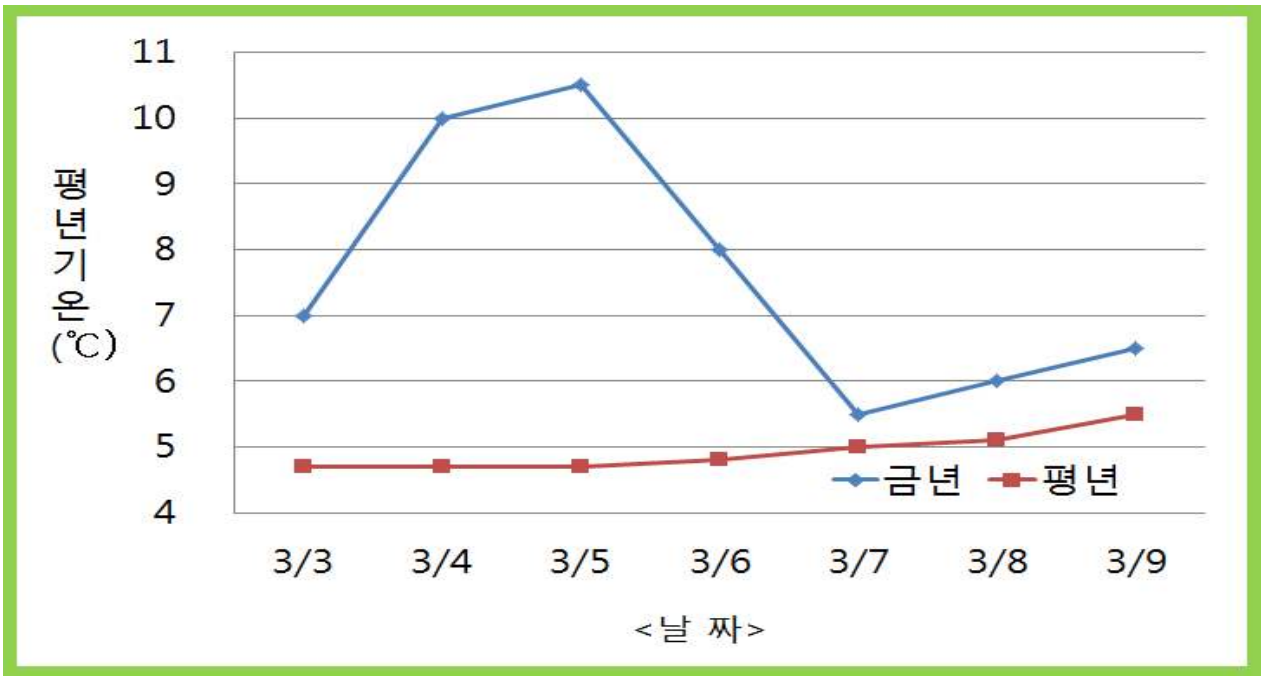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실시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7.4	5.1	2.4	12.4	10.8	1.6	2.5	0.3	2.2	1.7
3. 03.(목)	7.0	4.7	2.3	13.0	10.2	2.8	1.0	0.0	1.0	1.8
3. 04.(금)	10.0	4.7	5.3	17.0	10.3	6.7	3.0	-0.1	3.1	1.9
3. 05.(토)	10.5	4.7	5.8	13.0	10.2	2.8	8.0	0.1	7.9	2.0
3. 06.(일)	8.0	4.8	3.2	11.0	10.4	0.6	5.0	0.1	4.9	2.0
3. 07.(월)	5.5	5.0	0.5	11.0	10.6	0.4	0.0	0.3	-0.3	1.6
3. 08.(화)	6.0	5.1	0.9	11.0	10.9	0.1	1.0	0.4	0.6	1.6
3. 09.(수)	6.5	5.5	1.0	12.0	11.4	0.6	1.0	0.7	0.3	1.6
3. 10.(목)	6.0	5.9	0.1	11.0	12.1	-1.1	1.0	0.9	0.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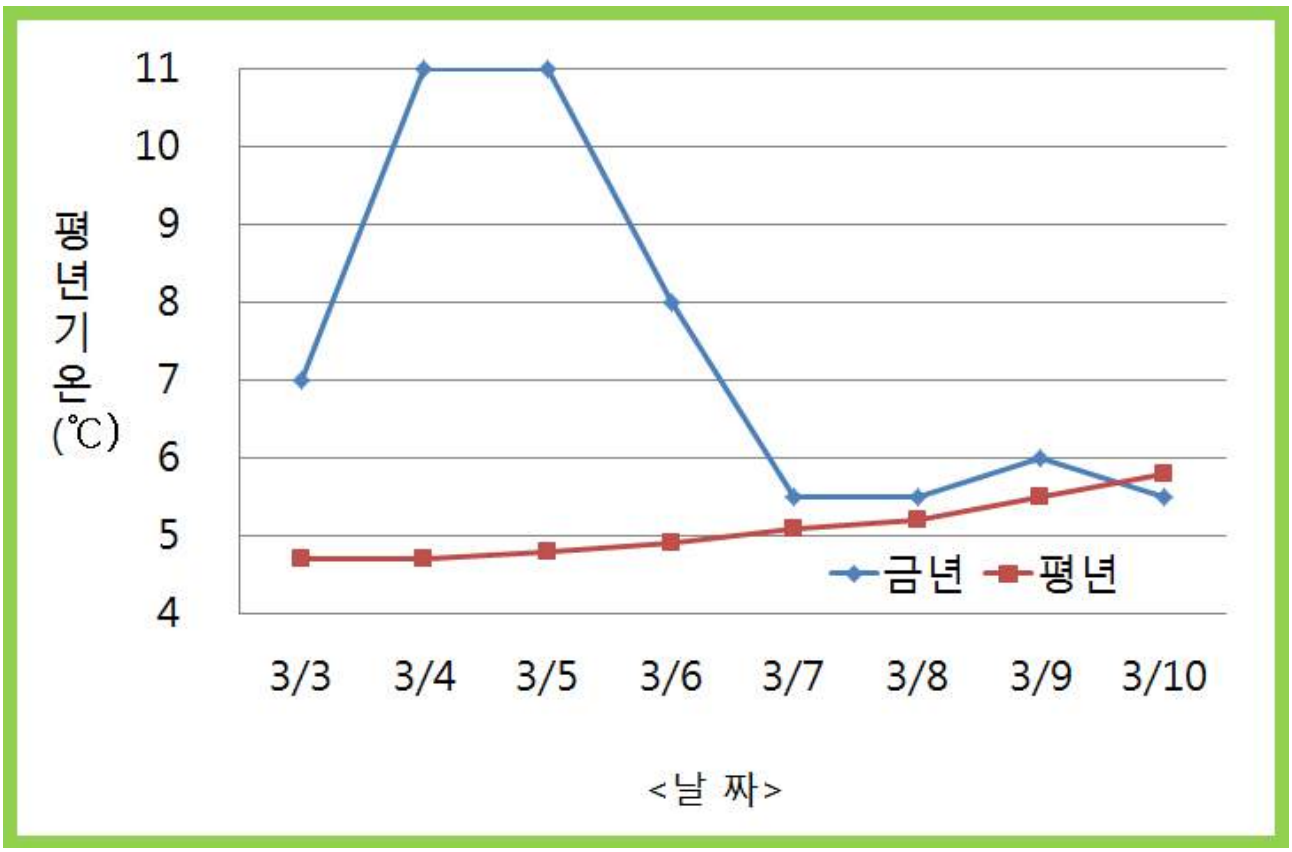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7.4	5.1	2.4	11.5	10.2	1.3	3.4	1.2	2.2	1.7
3. 03.(목)	7.0	4.7	2.3	12.0	9.7	2.3	2.0	1.0	1.0	1.5
3. 04.(금)	11.0	4.7	6.3	16.0	9.8	6.2	6.0	1.0	5.0	1.7
3. 05.(토)	11.0	4.8	6.2	13.0	9.7	3.3	9.0	1.0	8.0	2.1
3. 06.(일)	8.0	4.9	3.1	10.0	9.9	0.1	6.0	1.0	5.0	2.1
3. 07.(월)	5.5	5.1	0.4	10.0	10.1	-0.1	1.0	1.2	-0.2	1.7
3. 08.(화)	5.5	5.2	0.3	10.0	10.3	-0.3	1.0	1.3	-0.3	1.8
3. 09.(수)	6.0	5.5	0.5	11.0	10.6	0.4	1.0	1.5	-0.5	1.7
3. 10.(목)	5.5	5.8	-0.3	10.0	11.2	-1.2	1.0	1.7	-0.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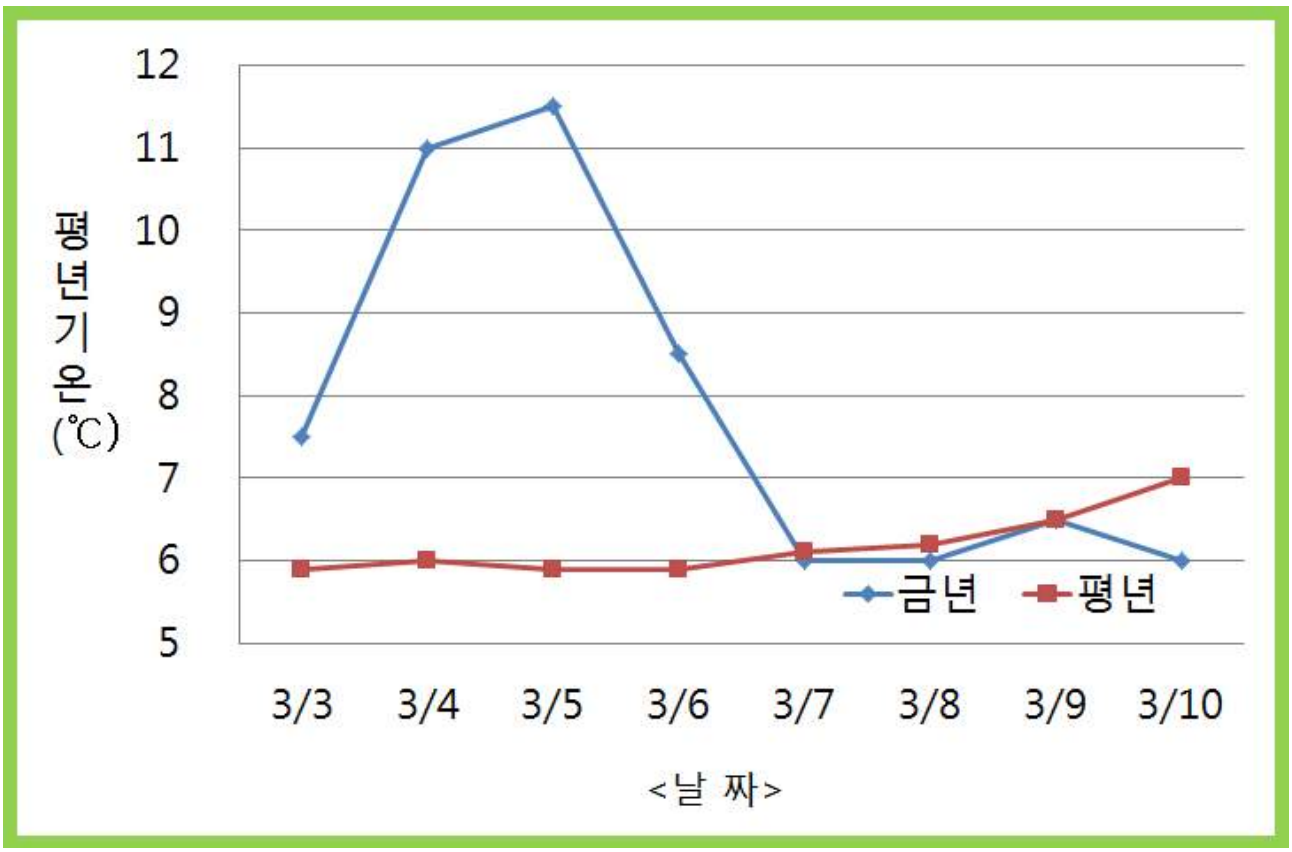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7.9	6.2	1.7	11.3	10.5	0.8	4.5	2.7	1.9	2.1
3. 03.(목)	7.5	5.9	1.6	11.0	10.0	1.0	4.0	2.4	1.6	1.7
3. 04.(금)	11.0	6.0	5.0	15.0	10.4	4.6	7.0	2.5	4.5	1.8
3. 05.(토)	11.5	5.9	5.6	13.0	10.2	2.8	10.0	2.4	7.6	2.5
3. 06.(일)	8.5	5.9	2.6	10.0	10.3	-0.3	7.0	2.4	4.6	2.6
3. 07.(월)	6.0	6.1	-0.1	10.0	10.4	-0.4	2.0	2.6	-0.6	2.2
3. 08.(화)	6.0	6.2	-0.2	10.0	10.5	-0.5	2.0	2.7	-0.7	2.2
3. 09.(수)	6.5	6.5	0.0	11.0	10.8	0.2	2.0	2.9	-0.9	2.3
3. 10.(목)	6.0	7.0	-1.0	10.0	11.3	-1.3	2.0	3.3	-1.3	1.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축산물 동향(관측정보)

3월 한우·돼지·계란 가격동향 및 전망

❑ 3월 한우 도매가격 16,500~18,500원/kg 전망

○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3~5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4,778원) 동기간보다 12~25% 상승한 kg당 16,500~18,500원(생체 600kg 환산 591~663만원)으로 전망

○ 1세 이상 소 사육 마릿수 감소로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 266만 마리보다 2.0% 감소한 261만 마리로 전망,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또한 전년 동월 275만 마리보다 1.6% 감소한 270만 마리로 전망

❑ 3월 돼지 지육가격 전년보다 하락 전망

○ 모돈수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3월 등급판정 마릿수는 전년 동월(142만 마리)보다 1.4% 증가한 144만 마리 전망

○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3월 지육가격은 전년 동월(4,657원) 대비 하락한 탕박 기준 kg 당 평균 4,200~4,500원 전망

❑ 3월 계란 산지가격 900~1,000원(특란 10개)전망

○ 산란 가담 신계군이 감소하나, 기존에 입식된 병아리가 많아 3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보다 6.3% 증가한 5,512만 마리로 전망

○ 3월 계란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2~31% 하락한 900~1,000원(특란 10개), 4~5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27~42% 하락한 800~1,000원으로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2. 29. 기준/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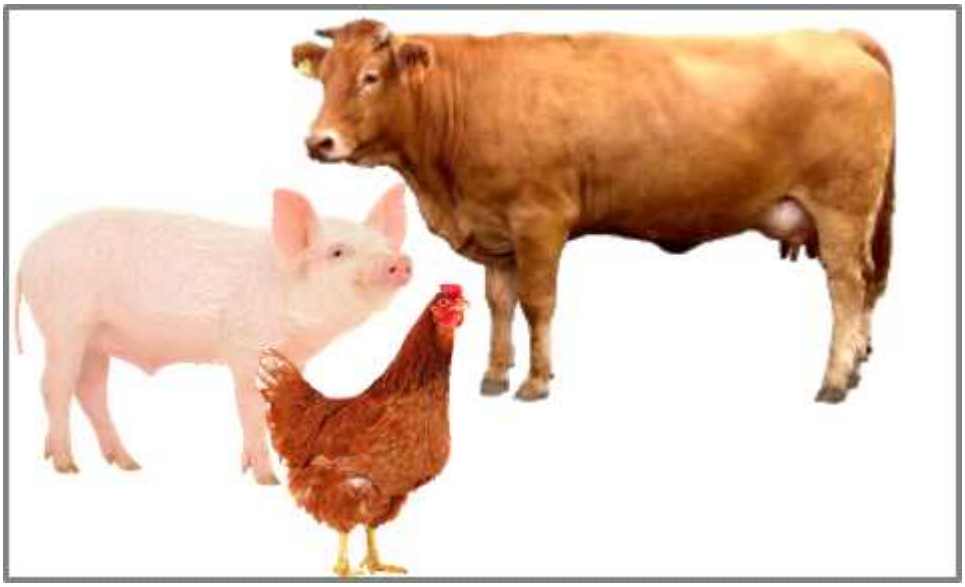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29)	1주일전 (02/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1,250	41,390	▼ 12.2	▼ 12.5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49,000	138,500	186,900	▲ 8.3	▼ 19.7
	고구마(밤)	10kg	26,800	27,000	27,600	26,550	27,110	▲ 0.9	▼ 1.1
	감자(수미)	20kg	31,000	31,000	31,000	33,350	28,966	▼ 7.0	▲ 7.0
채소류	배추(월동)	1kg	1,000	880	728	445	828	▲124.7	▲ 20.8
	양배추	10kg	6,100	6,000	7,550	6,600	7,795	▼ 7.6	▼ 21.7
	오이(다다기계통)	10kg	35,667	39,667	42,833	37,500	37,625	▼ 4.9	▼ 5.2
	애호박	8kg	25,600	27,000	39,550	24,800	27,360	▲ 3.2	▼ 6.4
	토마토	10kg	30,400	29,600	32,650	30,150	35,854	▲ 0.8	▼ 15.2
	당근	20kg	25,000	25,000	25,100	20,750	36,558	▲ 20.5	▼ 31.6
	건고추(화건)	60kg	780,000	780,000	780,000	820,000	938,400	▼ 4.9	▼ 16.9
	풋고추	10kg	72,800	75,600	72,650	98,650	91,594	▼ 26.2	▼ 20.5
	마늘(깐마늘)	20kg	85,667	86,333	85,333	61,333	63,833	▲ 39.7	▲ 34.2
	양파	20kg	32,200	32,200	33,450	13,300	20,436	▲142.1	▲ 57.6
	대파	1kg	2,910	3,150	3,320	1,805	1,877	▲ 61.2	▲ 55.0
	파프리카	5kg	32,600	28,800	53,250	26,300	34,732	▼ 24.0	▼ 6.1
	멜론	8kg	26,400	26,600	27,000	29,150	44,627	▼ 9.4	▼ 40.8
	방울토마토	5kg	25,000	21,400	24,000	15,250	22,898	▲ 63.9	▲ 9.2
	수박	1개	16,400	16,400	21,950	15,200	17,688	▲ 7.9	▼ 7.3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7,000	37,400	37,550	41,733	51,227	▼ 11.3	▼ 27.8
	배(신고)	15kg	44,600	45,600	47,250	37,050	49,378	▲ 20.4	▼ 9.7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29)	1주일전 (02/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28,000	567,200	↑ 0.2	↓ 6.7
	느타리버섯	2kg	9,400	9,400	14,700	11,750	10,614	↓ 20.0	↓ 11.4
	새송이버섯	2kg	8,800	8,600	9,950	9,050	8,866	↓ 2.8	↓ 0.7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08	8,085	8,096	6,320	5,949	↑ 26.7	↑ 34.6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20	1,868	1,871	1,702	1,674	↑ 6.9	↑ 8.7
	닭고기	1kg	5,188	5,121	5,212	5,456	5,951	↓ 4.9	↓ 12.8
	계란(특란)	30개	5,527	5,457	5,429	5,910	5,615	↓ 6.5	↓ 1.6
	우유	1리터	2,549	2,549	2,548	2,548	2,342	- 0.0	↑ 8.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3.1절 휴일로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다음 주 제공 합니다.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산물 직거래 농업인들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워크숍을 2월 26일에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 이번 워크숍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에 시행 될 예정에 따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직거래 성공사례, 쇼핑몰 운영기술 등이 발표되었으며, 농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최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연구결과 소득이 약 40.0% 증가하였으며 경력별로는 3년 이내는 58.0%, 5년 이내 43.4%, 10년 이내 21.8%, 10년 이상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식품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고 손쉽게 쇼핑몰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하는 경영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쇼핑몰 운영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해피굿팜)을 운영하고 있다.

○ 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닷가무화과(박일만 대표)는 2010년 귀농해서 무화과를 재배하면서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e-비즈니스 리더 양성 과정과 정보화 교육 덕분으로 온라인 쇼핑몰, 학교급식으로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판로에는 걱정이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농업인들도 이제는 판매시장을 먼저 확보”하고 작물을 재배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인사말에서 “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으면 농산물 직거래 시장 확대가 어렵다고” 하면서 “농산물과 지역 문화를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신뢰를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나주시, ‘토양검정’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본격적인 영농철 앞두고 토양검정 서비스 시작 –

○ 나주시는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토양검정 서비스를 시작했다.

○ 나주시 배기술지원과는 “작물의 맛과 영양은 토양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려있으며, 토양양분의 불균형과 양분과다 집적은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고, 농산물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며,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재해를 쉽게 받을 수 있다”며 "GAP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증가하면서 토양검정을 통한 토양관리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양 시료채취 방법은 동일 경작지 1,000㎡(300평) 5개 지점에서 채취하는데, 표토를 1cm정도 삽으로 걷어 낸 후(시설재배지 토양은 표토를 걷어내지 않음), 논과 밭은 15cm 깊이까지의 토양을, 과수원 토양은 수목의 끝가지로 부터 안쪽에서 20~30cm까지의 토양을 채취하여 골고루 섞은 토양 500g을 준비하여 재배할 작물, 과수의 경우 년생, 토양의 지번·지적(㎡),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의뢰한다.

○ 분석결과는 2주 정도 후에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토양검정 의뢰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2청사, 배기술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출처 : 나주시

광양시, 벼농사 제초효과 탁월한 새끼우렁이 공급

- 사업비 7천 6백여만원 투입해 674ha에 8톤 공급 -

○ 광양시는 벼농사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탁월한 제초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새끼우렁이 농법을 활용하면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보다 비용을 50% 가량 줄일 수 있으며, 노동력 절감, 생태계 보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특히, 피·물달개비·올방개 등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슈퍼잡초 방제도 가능할 만큼 탁월한 제초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무농약 친환경인증도 받기 쉬운 장점이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7천 6백여만원을 지원하여 674ha 면적에 새끼우렁이 8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 살포방법은 벼논에 써레질 직후 10a당 새끼우렁이 1.2kg을 논 한곳에 뿌려주면 되고, 논을 평탄하게 골라 논바닥이 물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시는 모내기 후에도 논물이 잠긴 상태로 관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새끼우렁이 농법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3월 14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광양시에서는 전체 논 면적의 35%가 새끼우렁이 농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광양시

고흥군, 억대부농 534농가 “전남 최다”

– 군 역점시책 “비전5000 프로젝트” 한 몫 –

○ 고흥군의 억대부농이 534농가로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군은 지난해 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534농가인 것으로 조사돼 차 순위인 강진군의 404농가보다 무려 130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 작목별로는 벼가 259농가로 가장 많았고 채소 134농가, 축산 61농가, 과수 38농가 순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34농가, 50대가 206농가, 40대가 80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군은 고소득 요인을 고흥만 간척농지 쌀 규모화와 유자 등 특화작목 육성, 조사료 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 비전5000 프로젝트 집중 육성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틈새작목 육성에도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 특히, 청년 농업인 오영호 대표가 운영 중인 해맑음팜 농업회사의 “곡물펀드” 사업은 6차 산업의 모델로 온라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호평을 받고 있다.

○ 또 다른 청년 농업인 박영성 대표의 아이베리 팜 “블루베리 농장”은 재배에서 부터 수확, 가공단계까지 체험시설을 갖추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6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소득 농업인 성공사례를 비전5000 프로젝트 멘토링 활동과 연계 확산시키고 5천만원 이상 잠재 고소득 농가의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강진군, 친환경농업 이제는 돈 안들이고 실천

– 천연농약 제조기술 등 저비용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실시 –

○ 전남 강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친환경농업을 되살려 제2 도약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 지난 18일과 25일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160명 교육이수를 목표로 저비용 친환경농업교육을 한다.

○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을 중도에 포기한 농가 및 신규참여 희망농가 위주로 교육대상자들을 선정했으며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를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 마인드 함양과 더불어 천연농자재 제조기술 습득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 1차 교육에 나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41명은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기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자연을 닮은 사람들’을 방문해 조영상 대표로부터 토착미생물 배양방법 및 토양관리, 친환경농약 제조방법 등을 배웠다.

○ 특히 이날 농가들은 산과 들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산야초·부엽토·천연물질을 이용한 토착미생물·청초액비 등 친환경농자재와 병해충 방제 천연농약 제조기술과 사용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기에 처음 친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산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농민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으며 이날 교육을 수료한 참여 농가들은 자연을 닮은 사람들 교육기관으로부터 저비용 농업기술 설계사 인증서를 받았다.

○ 강진군은 참가농업인들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활용해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기여에 앞장서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농산물은 더 이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농업인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소득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진군은 초저비용 친환경 농업정착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기술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과 유기농업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오는 3월 24일, 3차 교육이 이어질 계획이다.

* 출처 : 강진군

2016 농촌지도사업 62개 시범사업 선정

–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무논점파 시범사업 등 –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상황실에서 2016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해남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이번 심의회는 농업관련기관장, 유통업체, 품목별 연구회장, 농업인 학습단체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이 시범사업의 요인, 선정기준,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회의결과 6개 분야, 62개 사업(4,579백만원(보조 3,278, 자담 1,301))을 선정하였다.

○ 주요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업 및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 작목 발굴, 벼 생력재배와 고품질 쌀 생산, 농업의 6차 산업화, 우량종서의 안정적 생산 등이며,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토록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상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전념할 계획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는 농촌지도사업의 목표는 "농수산업 1조원시대 실현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기술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집중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열린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완도군, 해풍의 농업적 이용가치 밝혔다

– 해풍 맞고 자란 농산물 당도, 무기물 함량 탁월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농산물이 맛과 향뿐만 아니라 무기질 함량도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 군은 지난 18일 '해풍의 농업적 이용가치 구명(究明)'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 이번 연구는 완도군이 지난해 6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8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쳤다.

○ 이번 용역결과 완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부지화·비파·포도 등)이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의 영향으로 타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무기물인 칼리·칼슘과 생리활성 물질인 나린긴·헤스페리딘 함량이 높아 맛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최종 보고회에서 “해풍과 해무에는 무기물이 풍부하다”며 “완도 농산물은 해풍과 해무에 있는 무기물들이 과수에 접촉해 과실 내에 무기물 함량이 축적돼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 연구결과 부지화는 당도 12.8~13.5%, 무기물함량은 타 지역에 비해 7.3~18.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파는 타 지역에 비해 칼리함량은 1.0~13%, 칼슘은 6.0~7.1% 더 높았다.

○ 포도는 타지역에 비해 무기물인 칼리가 1.28mg, 안토시아닌 함량이 0.02~0.21mg 더 높게 측정됐다.

○ 신우철 완도군수는 “맛과 기능성이 뛰어난 완도 농산물의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농산물 명품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은 ‘해풍의 농업적 이용가치 구명(究明)’을 통해 학술적으로 검증된 완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완도군농업기술센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국산 홍차 수출을 위해 생산농가가 직접 앞장서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홍차 제품으로 해외시장 개척한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내 차(茶) 소비량 증대와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차 생산농가들과 함께 고품질 홍차생산 및 판매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망하였다.

○ 지난해 2015년에는 차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홍차 제조방법 기술 교육을 통해 선도농가가 직접 고품질 유기농 홍차 시제품을 유럽 시장에 보내면서 세계 차 애호가들이 국내산 홍차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홍차 제품의 공동생산, 품질관리, 생산비절감, 정보수집 등 해외 수출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생산농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 2월 24일 차산업연구소에서 해외시장 개척 및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회를 갖었다.

○ 보향다원 최준용 대표에 따르면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판로를 개척한다면 국내산 홍차가 미국·유럽·중국 등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 잡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 차산업연구소 최정 연구사는 “앞으로 생명의 땅 전남에서 생산된 유기농 홍차 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국제 차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비절감 연구 추진을 통해 국내 고품질 유기농 홍차를 반드시 세계 차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청주 '청원생명쌀' 80톤 중국 수출 길

－내달 12톤 첫 선적 －

○ 청주시 청원생명쌀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 청주시 원예유통과는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쌀이 발아현미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수출품목인 청원생명쌀 발아배아미는 쌀눈이 66%를 차지하는 기능성 쌀이다. 수출물량은 총 80톤, 4억 8,600만원어치다. 또 유기농쌀을 비롯해 발아구운 현미·배아분골드·청원생명쌀눈 등이 함께 수출된다. 오는 3월, 1차 12톤이 평택항을 통해 수출될 예정이다.

○ 시는 청주시장과 수입업체인 구진당(대표 두연연), 청원생명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범로)이 참여해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국 수출 길을 열었다. 수입업체인 구진당은 중국 우한시에 소재한 친환경농산물과 기능성 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 회원제로 운영한다.

○ 청원생명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쌀로 전국소비자가 선정한 고품질 브랜드 쌀 러브미 8회를 수상한 바 있다. 또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브랜드에 인증하는 한국표준협회 LOHAS 인증을 9회 연속 수상했다.

○ 박용국 팀장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월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중국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 등에 참관하고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고품질 벼, 안백·만백 품종

– 광범위 저항성으로 품질 우수... 친환경 재배에도 알맞아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벼흰잎마름병에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벼 '안백'과 '만백' 품종을 개발했다.

○ 벼흰잎마름병은 벼 잎의 상처를 통해 병원균이 침입하면서 하얗게 말라 죽는 병으로 충남 이남의 평야지를 중심으로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686ha의 논에 피해가 발생했다.

○ 최근에는 기존의 저항성 품종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병원성이 강한 새로운 균주(K3a)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안백'과 '만백'은 벼흰잎마름병 저항성유전자 두 개(Xa3, xa5)가 집적돼 병원성이 강한 K3a 균주와 국내 다른 균주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저항성을 나타낸다.

○ '안백'은 벼꽃 피는 시기가 8월 14일이고, '만백'은 8월 19일인 중만생종 품종이다. 쌀 수량은 '안백'이 10a당 570kg, '만백'이 537kg이며 외관 품위가 맑고 깨끗하며 도정률이 높고 밥맛이 양호하다.

○ 또한, 줄무늬잎마름병과 수발아(이삭 싹나기), 쓰러짐에 강해 재배 안전성이 뛰어나다.

○ '안백'과 '만백'은 신품종이용촉진사업 등 종자 생산 단계를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김보경 과장은 "'안백'과 '만백'은 특히 벼흰잎마름병 발병이 우려되는 발병 상습지와 친환경 재배단지에 재배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단감 유기재배 매뉴얼 책자발간 보급

- 연 10회 방제로 병해충 70% 방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유기재배 내실화를 위해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단감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 그리고 친환경재배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고 말했다.

○ 단감은 연평균기온 12℃ 이상인 지역에서 재배되는 온대성 과수로 전남과 경남에서 24,299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 친환경 재배는 30ha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친환경농업의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 많은 농가들이 문제 병해충 방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 왔다.

○ 이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재배, 토양·양분, 병해충 분야별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2013년부터 3년 동안 유기재배 실태조사 및 현지 실증시험을 통해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이번에 발간한 유기재배 매뉴얼에는 국내 단감의 유기재배 현황, 수체관리 요령, 토양 및 양분관리, 생리장해 방지기술, 기상재해 예방, 병해충 방제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 특히 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병해충 관리기술에서는 감꼭지나방 교미교란트랩 설치와 연간 10회 유기자재를 살포해서 병해충 피해를 70% 줄일 수 있는 방제력과 석회보르도액, 황토유황 등 유기농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유기자재 만드는 방법을 수록하였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연구사는 국내 단감 유기재배 면적확대를 위해 2017년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신청했으며, 이번 매뉴얼에서 다소 미흡한 노린재류 방제기술 등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원 개원 시 나무는 남북 방향으로 심으세요

- 동서 방향보다 남북 방향이 11~12% 일조량 더 많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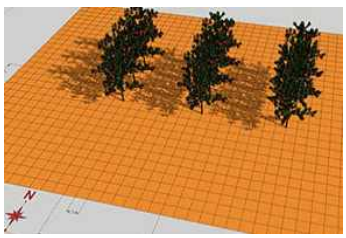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새롭게 사과나 배 과수원 개원 시 나무 심는 방향을 남북방향으로 심어야 일조 방해를 덜 받는다고 발표했다.

○ 최근 귀농·귀촌으로 신규 과수원을 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무 심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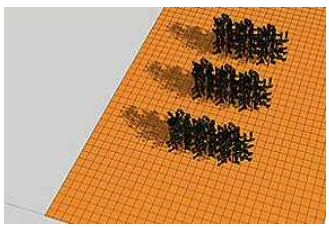
○ 이럴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일조량인데 기존에는 남북방향으로 나무를 심으라고 제시했을 뿐,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 이번에 농촌진흥청 과수과에서는 나무 심는 방향에 따른 사과와 배 과수원의 일조 방해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으로 구명했다.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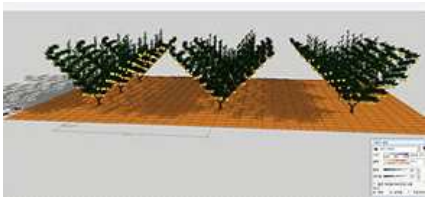


남북방향에 의한 사과 일조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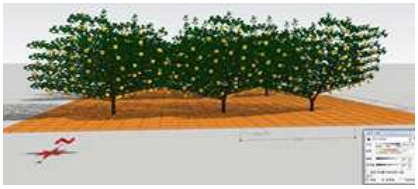


동서방향에 의한 사과 일조 시뮬레이션

<배>



남북방향에 의한 배 일조 시뮬레이션



동서방향에 의한 배 일조 시뮬레이션

○ 지난해 4~10월까지 사과는 경북 청송군에서, 배는 경북 영천군에서 하루 동안의 일조에 의한 그늘 정도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사했다.

○ 지난해 9월 기준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동서방향보다 남북방향이 일조에 의한 그늘 정도가 사과 과원은 12%, 배 과원은 11%로 각각 적게 나왔다.

○ 일조 방해율이 높을수록 사과·배의 수확량 감소율이 증가하고 또 상품성 가치 하락률도 증가한다.

○ 사과원의 나무 모양은 세장방추형으로 하고 재식거리는 4m×2m 기준으로 했다.

○ 배 과원은 나무 모양을 Y자형으로 하고 재식거리는 6m×3m 기준으로 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번 결과를 올해 농가 교육을 통해 홍보해나갈 예정이며 경사도 등을 추가해 '농업기술길잡이' 책자에도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한현희 연구사는 "이번 연구로 사과와 배 과원의 신규 과원 조성 시 재식방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로 일조방해에 의한 과실 품질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얼었던 땅 녹으면 풋거름 작물 습해 주의하세요!

– 헤어리베치는 습해에 약해 배수로 관리에 더 신경써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겨우내 얼어 있던 땅이 녹으면서 풋거름 작물 재배 농가에 철저한 배수로 정비를 당부했다.

○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면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고 토양 유실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외에도 이들이 토양에 환원되면 유기물 공급, 화학비료 대체, 토양 특성 개량 등의 효과도 있어 현재 전국 2만 6,205ha에서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 얼었던 땅이 녹으면 토양 내 수분이 많아져 공기 흐름이 나빠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양분 흡수 기능이 떨어져 습해를 입게 된다.

○ 지난해 12월부터 남부 지방 등에 많은 비나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이변이 잦았던 만큼 습해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 특히, 비료 성분이 풍부한 콩과 풋거름 작물인 헤어리베치는 생육 초기에 습해를 받기 쉽고 눈이나 비가 내린 다음에 기온이 내려가면 어는 피해까지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습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동안 손상된 배수로를 2~4m 간격으로 배수를 재정비해 비가 왔을 때 물빠짐을 좋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토양에 수분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뿌리가 상하고 썩어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 수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김민태 농업연구사는 “화학비료를 줄이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풋거름 작물 재배가 필수이며, 봄철 풋거름 작물의 습해 예방을 철저히 해야만 충분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겨울 사료작물 파종 부진, 봄 파종으로 해결하세요

- 지난해 가을 잦은 강우로 파종 부진... 봄 파종 적극 나서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봄 파종 면적 확보와 관리를 통한 수량 증대를 위해 26일 전남 장흥군 들녘에서 무인헬기 등을 이용해 ‘겨울 사료작물 봄 파종 연시회’를 연다.

* 봄 파종 연시회 2.26.(금), 14시,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38-3(3필지 1ha)

○ 이날 연시회에서는 무인헬기를 이용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하 IRG) 항공파종과 지난 가을 파종한 풀사료의 서릿발 피해 예방을 위한 롤러 눌러주기, 배수로 골 파기 등도 시연한다.

○ 지난해 가을 벼 수확기에 비가 자주 내린 지역은 논 파종 면적이 크게 줄고 늦은 파종으로 풀사료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돼 재배 기간이 짧은 조생종 IRG 품종을 권장하고 있다.

○ 봄 파종은 2월 중순 이후부터 파종하되, 언 땅이 녹으면 파종 시기를 앞당긴다.

○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봄 파종을 할 때 가을 파종보다 파종량은 20~30% 늘리고 비료도 10% 더 주면, 가을에 파종한 것과 비슷한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종은 조생종인 그린팜·코스피드·코윈어리 등을 선택하고, 파종량은 1ha당 50~60kg이다. 파종 방법은 먼저 밭을 갈고 파종기로 줄뿌림하거나 흩어뿌림한 다음, 반드시 눌러줘 봄철 건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거름 주는 양은 파종 시 복합비료(21-17-17)를 1ha당 330kg를 주고 본 잎이 2~3장 났을 때 요소비료 150kg를 주는 것이 좋다

○ 2월 15일에 파종하고 수확 시기에 조사한 결과, 초장(풀길이)은 102cm에 수량은 1ha당 2만 6,550kg였다. 3월 5일에 파종한 것은 초장(풀길이) 98cm에 수확량은 1ha당 2만 2,330kg으로, 이른 시기에 파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눌러주기도 중요하다.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에 롤러 등으로 눌러준 곳은 가을 파종의 경우, 1ha당 평균 수량이 4만 2,417kg이었으나, 눌러주기를 안한 곳은 1ha당 2만 8,713kg으로 40% 이상 수량이 늘었다.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올해 품질 좋은 IR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봄 파종용 종자를 미리 확보해 제때 파종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작물의 안정적 생육, 비료 사용에 달렸다

- 농촌진흥청, 올바른 비료 사용법 제안 -

○ 한 해 농사는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토양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확인해 작물 생육에 이로운 토양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이에 작물의 안정적인 생육을 돕고 토양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 부족하기 쉬운 질소(N)·인산(P)·칼륨(K)·칼슘(Ca)·유기물 등 비료 5요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질소(N)·인산(P)과 칼륨(K) 사용법

○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밑거름은 토양을 갈기 전 유기물과 함께 토양 전면에 뿌려 골고루 섞이게 해야 작물 초기 생육에 유리하다. 웃거름의 경우, 질소와 칼륨은 작물 생육 중 3~4회로 나눠 줘야 작물이 안정적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비료를 관개수에 섞어 주는 관비의 경우에는 웃거름으로 필요한 전체 양을 관비 횟수로 나눠 해당 양 만큼만 주는 것이 좋다.

◆ 칼슘(석회) 사용법

○ 작물에 필요한 비료원이며 토양 산도(pH)를 조정하기 위한 물질이다. 대부분의 작물은 토양 산도가 6.0~7.0일 때 양분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6.0 이하라면 칼슘을 공급해 토양의 산도를 작물 생육에 적정한 범위로 맞춰줘야 한다.

◆ 유기물 사용법

○ 토양 양이온 교환 용량과 보수력 증가, 토양 입단화 향상, 작물·미생물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 등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작물을 재배하기 25~40일 전에 완숙유기물을 필요한 양만큼 뿌리고 토양을 갈아 분해시킨다. 미숙유기물은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이 발생해 작물 뿌리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도시 농부를 위한 비료사용법

○ 작물을 심기 전에 양질의 완숙퇴비와 화학비료(질소, 인산, 칼리 등)를 구입해 토양과 잘 섞어 양분과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작물과 토양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10㎡ 를 기준으로 퇴비는 1/2포(10kg), 질소(요소) 200~300g, 인산(용과린) 250~500g, 칼륨(염화가리) 100~200g을 밑거름으로 공급하고, 작물을 심은 후 2~3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작물별 웃거름 비료를 구입해 처방서에 맞게 물에 녹여서 주면 좋다.

○ 필요한 화학비료와 유기물의 양은 농촌진흥청 흙토람 비료사용처방(soil.rda.go.kr)에서 작물별로 확인할 수 있다.

○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양 시료를 채취해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면 된다.

○ 한편,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작물이 자라는 데 반드시 필요한 원소는 총 19가지로, 탄소·수소·산소는 공기와 물에서 얻고 나머지는 토양에서 공급받는다.

○ 비료는 1ha당 요소 130kg, 용성인비 250kg, 염화가리 67kg을 파종할 때 전량을 주고, 식물이 20cm 정도 자랐을 때 요소 130kg을 추가로 주면 좋다.

○ 작물이 땅에서 흡수하는 필수 원소는 고유의 생리적 기능을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너무 많으면 황화, 갈변, 괴사, 생육 불량 등 영양 장해가 발생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이덕배 과장은 “올해부터 정부3.0 사업의 하나로 맞춤형 비료 제안과 문자 메시지 전송 등 비료사용처방서의 편의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작물 재배 유형과 생육단계별 비료사용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15만 7천톤, 3월 중 매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15년산 쌀 15만 7천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3월 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추가 격리 조치로 지난해 쌀 생산량 432만 7천톤 중 신곡 수요량 397만톤을 초과하는 15만 7천톤 전부를 정부가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RPC가 보유하고 있는 '15년산 벼*이며, 매입방식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입찰에 참여하는 농가 및 업체의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벼로 제한

○ 농식품부는 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추진 계획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입찰계획 통보 및 입찰시스템 준비 → 입찰공고 및 실시(3월) → 정부인수

❑ 농식품부는 격리 이후 쌀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생산·소비확대·재고관리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에 1조 5천억 지원

-'행복한 삶터·일터 구현' 위한 4차 기본계획 수립해 5년간 추진-

○ 전라남도는 농촌사회 여성농업인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 5년간 1조 5천억원을 들여 여성농업인 보호,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 전라남도는 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비전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 구현'을 제시했다.

○ 비전 실현을 위해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4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여성농업인의 전문 경영능력을 위한 영농 및 리더십 교육 확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 지원, 보육 도우미 지원, 결혼이민 여성의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농촌지역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강화, 여성농업인의 6차 산업지역 개발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14년 농가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남 여성농가는 18만 9천명으로 총 35만 6천명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관원, GAP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컨설팅은 ’10년 시범사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는 GAP의 선도조직 육성을 위해 공동선별회, 원예전문생산단지 등 대규모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GAP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 컨설팅의 주요 수행사항은 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요령, 인증기준 및 실천요령 교육, 인증신청까지 농업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 '16년 사업예산: 5억원(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컨설팅 수행)

○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지자체·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컨설팅팀(118개팀)을 운영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컨설팅으로 GAP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 또한, 농관원은 GAP인증에 따른 토양·수질·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는 농가당 안전성 검사 항목별로 1회 지원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인증농가가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 다만, 다른 사업에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와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중 수확하는 품목(상추·깻잎·콩나물 등)은 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을 당초 시·군·구에서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개편하였다.

-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농산물 인증서, 안전성 검사성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올해 11월 30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농식품 시장개방 확대(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 조기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화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의 GAP 인증 참여를 적극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 캐나다, 인삼 수입규제 완화로 수입시장 성장세

○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인삼을 비롯한 당근·양파 등의 뿌리 작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함.

○ 캐나다는 뿌리 작물 수입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2015년 8월부터 포장된 뿌리 작물에 대해서는 CFIA의 수입허가서와 식물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캐나다에서 인삼을 함유한 건강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NPN(Natural Product Number)을 취득해야 함.

○ 18세기부터 캐나다와 미국에서 재배되는 북미삼(NTA; North American Ginseng, 또는 화기삼)은 우리나라의 고려인삼 및 중국 전칠삼과 함께 약효와 경제성을 인정받은 3대 인삼 중 하나로 손꼽힘.

○ 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북미삼은 2종이 존재하나, 현재는 Panax Quinquefolius종만 재배 및 수출이 가능한 상황임.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북미 최대의 북미삼 재배단지가 형성되어 있음.

○ 온타리오인삼재배협회(Ontario Ginseng Growers Association, OGGA)에 따르면, 캐나다 인삼재배 면적은 약 2,200ha에 달하며, 이중 90%가량이 캐나다 동부의 온타리오 주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현재 온타리오 주에는 약 142개사가 전문적으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특이사항으로 캐나다는 인삼 성분이 포함된 미용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편의점, 대형마트,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주요 수출국은 홍콩 및 중국·미국·싱가포르·대만 등이며 높은 관세율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은 미미함(2014년 8,800만달러, 2015년 전무).

○ 캐나다는 인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조직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자국 삼의 효능 및 품질 개선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활발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화기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기준,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 인삼재배협회에 42만 3,000달러를 제공하여 인삼 재배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캐나다 인삼 수입규모는 약 2,040만 달러로, 2014년 대비 14% 증가하였음. 인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늘어난 것은 아시아계 캐나다인 등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삼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능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캐나다 FTA(2015. 1. 1.) 발효 이후 한국산 인삼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율(Korea Tariff, KRT)이 부과돼 무관세가 적용되나, 경쟁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및 최혜국관세(Most Favored Nations, MFN) 역시 무관세가 적용됨.

○ 인삼에 적용되는 캐나다 관세는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자국 인삼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까다로운 수입규제를 실행하였음. 그러나 2015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인삼 수입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시장에서 고려인삼은 높은 수입 관세율과 홍삼 관련제품 생산으로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북미산과 중국산 인삼은 물론이고 프랑스·스위스 등 인삼을 대량 재배하는 국가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프랑스, 곤충으로 고단백질 생산

○ 전문가들에 따르면, 2050년쯤에는 인구가 약 90억명에 이르고 늘어난 인구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방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출시하는 SFly가 프랑스 오베르뉴 론-알프스(Auvergne Rhône-Alpes)에 유럽 산업 최초의 프로젝트 연구 센터 (R&D Auvergne Rhône-Alpes) 수립을 준비 중임.

○ SFLY는 동애등에(Black Soldier Fly, Hermetia illucens)라 불리는 파리 사육을 통한 산업 생산품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임. 즉, 유기성 폐기물을 생물 전환시켜 나온 영양분을 기반으로 단백질 가루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임.

○ SFLY는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을 만들기 위해 2010년부터 'Entofood'(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프랑스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곤충식품 개발 기관)라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개발된 생물변환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 SFly의 주요 기술력은 다음과 같음.

-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변환
- 세계에서 유일한 바이오 생산 모델을 사용
- 사육에 관한 생물보안과 식품안전성 보장
- 단백질에 개발로 전 세계적인 식량 수요 충족
- 생물 다양성을 존중 및 친환경적 기술사용

○ SFly는 프랑스에 있는 폐기물 수집하는 주요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음. 이 기업은 엄격한 생산 과정 검열을 통해 유충으로부터 고영양가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전 세계에서 검사를 받아 영양부분에서 훌륭한 결과를 보였음.

○ 곤충 폐기물의 재활용은 바이오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농수산물 식품 업계에서 발전 가능성 높은 시장임. 특히, 환경에 대해 많은 규제와 제재가 있는 유럽 시장에서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이미지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 시장은 상대적으로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경제적인 면에서나 개발 차원에서나 한국에서도 관련 업체 협업을 통한 개발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2. 29.(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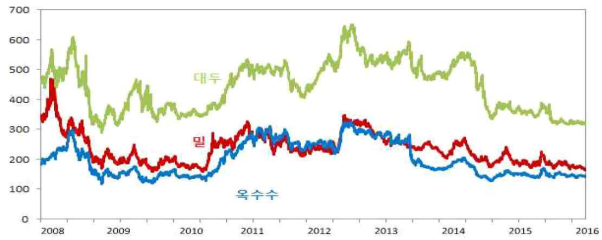
16/17 공급량 증가 전망에 곡물선물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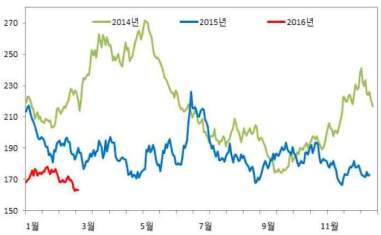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6.2.26)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	2015 평균
밀	162.85	▼0.4%	174	186
옥수수	139.52	▼0.3%	142	148
대 두	314.15	▼0.5%	323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 3월물,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낮은 파종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단수조건으로 인해 재고량이 증가 할 것이란 전망에 하락함. 밀 생산량은 19억 9,100만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기말재고량은 15/16년보다 2,300만 부셸 오른 9억 8,900만 부셸로 USDA는 전망함.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수요를 앞지를 만큼의 상당한 파종면적에 16/17년 옥수수 공급량이 근 12년래 최대일 것이란 USDA의 전망에 하락함. USDA는 16/17 옥수수 공급량에 대해 138억 2,500만 부셸, 기말재고량은 19억 7,700만 부셸을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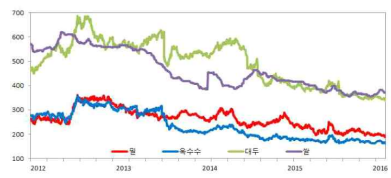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재고량이 crush량과 수출 수요로 인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반등이 기대되었으나,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대두 생산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에 10주래 최저가격을 기록하며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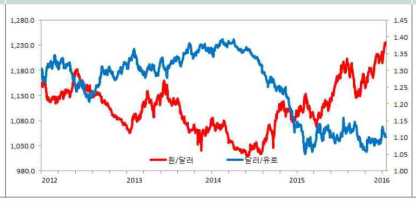
관련동향

- 브라질 항구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대두 수요 약세에 하락
-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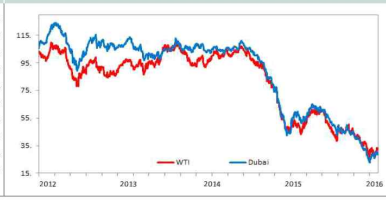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9	▲0.5%	환율	원/달러	1,236.1	▲0.1%
	옥수수	161	▼0.6%		달러/유로	1.1024	▲0.1%
	대두	336	▼0.9%	국제유가 (US$/B)	WTI	32.78	▼0.9%
	쌀	372	▲0.3%		Dubai	30.43	▲3.3%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4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2.25(수출가격), '16.2.26(환율), '16.2.2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bsn02@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 하세요!

○ 2016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3월 1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16. 3. 1.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로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
  · 친환경농업 직불금 : 유기인증 전 농지, 무농약 인증 3년 이내 농지
  · 무농약 지속 직불금 : 무농약 인증 4년차인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됩니다.
- 지원한도 : 농가(법인) 당 0.1 ~ 5.0ha
- 지원제외 : 인증면적이 1천㎡(300평)미만, 인증면적이 5ha 이상 면적
- 지급단가
  · 친환경농업 직불금 : 유기농 논 600천원, 밭 1,200천원
  무농약 논 400천원, 밭 1,000천원
  · 무농약 지속 직불금 : 논 200천원, 밭 500천원
  * 직불금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합시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밭작물 신품종 종자 공급

- 콩·참깨·수수 등 밭작물 17품종 종자 25톤 공급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밭작물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금년도에 재배할 밭작물 신품종 종자를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 공급 대상 작물은 두류(콩·팥), 잡곡(조·수수·기장), 유지작물(참깨·들깨·땅콩)의 17품종 25톤이며,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종자 소진시까지이다. 종자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기간 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사업팀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종자는 3월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 금년도에 보급할 콩은 진풍·선풍·해품·청자3호 4품종이고, 팥은 '아라리'와 '홍언'이며 3kg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된다.

○ 장류용 콩 신품종인 '진풍'과 '선풍'은 도복과 꼬투리 터짐에 강해 기계화 재배가 용이한 신품종이며, 나물용 신품종인 '해품'은 풍산나물콩보다 백립중이 1.6g 가벼운 소립으로,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높아 기계화 재배에 유리한 품종이다. '청자3호'는 밥밀용 속푸른 검정콩이다.

○ 팥은 2모작 작부 체계에 따라 적합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생종인 '홍언'과 중생종인 '아라리'를 보급할 예정이며, 2품종 모두 도복에 강하고 기계화 작업에 유리하도록 곧게 서 있는 직립형으로 통팥 및 앙금 가공에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유지작물에서 참깨 신품종으로 흰깨는 유풍·수지·건백·강안과 검정깨는 '화룡' 등 5품종이며 0.5kg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된다. 들깨는 다유·들샘 품종으로, 1kg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된다. 땅콩은 풍산·상안·아미·자선·연풍·보름 등 6품종이며 15kg 단위로 포장하며, 피땅콩으로 공급된다.

○ 들깨 신품종 '다유'와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착유용 들깨로 종실 및 조미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땅콩 신품종 풍산·상안·연풍은 간식용 볶음땅콩으로 적합한 품종이며 아미·자선·보름은 풋땅콩용 신품종이다.

○ 잡곡 신품종으로는 차조인 '경관1호'와 찰수수인 '남풍찰', 찰기장인 '이백찰'을 공급하며, 포장단위는 1kg과 3kg으로 구성하여 재배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경관1호'는 종피색이 청색인 청차조이며, '남풍찰'은 이삭목까지의 키가 142cm로 중간크기의 찰수수이고, '이백찰'은 종피색이 노란 찰기장이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할 예정인 밭작물의 품종별 특성, 재배상 유의점 등 재배기술 관련 정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광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과 종자신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사업팀(031-8012-7274,7277,7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과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태풍, 동상해 대비를

-3월 25일까지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5개 품목 가입-

○ 전라남도는 오는 3월 25일까지 주요 과수 5개 품목에 대해 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 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5개 품목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천㎡(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에서 80%를 지원, 실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 주계약은 태풍(강풍), 우박 등으로 인한 과실 손해를, 특약은 봄가을 동상해와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나무 손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 특히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 폭을 지난해 최대 40%에서 올해는 30%로 줄인 반면 할인 폭은 25%에서 30%로 늘려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 지난해 전남에서는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에 5천 967농가에서 5천 56ha를 가입해 태풍우박 등 피해를 입은 524농가가 35억 7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 실제로 장성 동화면에서 떫은감 0.6ha를 재배하는 신 모(51)씨는 총 산출 보험료 44만원 가운데 농가 부담금 8만 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우박 등 피해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39배인 31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빈번해지고 발생 시기와 장소도 예측할 수 없다”며 “자연재해로 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이루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해 전남지역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 총 78억원 가운데 과수 특정위험보장에 지급된 보험금은 38억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2월 24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농자재 구입, 농협 조합원 가입, 각종 농림사업 신청 등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농관원 사무소 또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였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농업인 불편이 많았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자신의 집이나 가까운 면사무소지역농협 등 인터넷과 프린터가 가능한 곳에서 직접 자신의 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 동 서비스는 농업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변경등록 신청, 확인서(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포털에 접속,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면 된다.

○ 처음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규등록 신청을, 이미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자신의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 등록 확인서나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물은 위변조 방지 처리된 문서로 발급된다.

○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다소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콜센터(1644-8778)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스템 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74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